은닉 도난 성보 '환지본처' 길 열다

[기획] 2014~2022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 여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립박물관장 A씨 은닉 성보
2014년부터 2차례 거쳐 환수
은닉범 A씨 집유 · 몰수 판결
총 38건 73점 성보 본 자리로
불법 은닉 문화재 근절 계기
공소시효 확대 등 개선 필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6월 8일 열린 도난 성보 환수 고불식에서 헌향하고 있다.

숫자로 본 2014~2022 성보환수史

총 38건 73점

1차 환수 31건 48점 (2014~2017)
19곳 (피해사찰)

2차 환수 7건 25점 (2016~2022)
7곳 (피해사찰)

"도난됐던 소중한 성보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환수돼 이제 원봉안처인 사찰에 봉안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환지본처를 기념하기 위해 부처님께 아뢰고 널리 세상에 알리는 날입니다."(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2022년 6월 8일 1989년에서 1994년 사이 도난됐던 7개 사찰 성보문화재 25점이 30년만에 원봉안처인 사찰로 환지본처됐다.

도굴꾼, 장물아비와 문화재 은닉범으로 인해 사찰을 떠난 성보문화재들의 환지본처를 알리는 고불식은 지난 2017년 4월 4월 이후 두 번째다.

환수 시스템 구축한 1차 환수

도난 성보들이 본격적으로 환수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다. 2014년 5월 26일, 한 경매회사에서 불교미술을 주제로 경매가 열린다는 소식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로 접수됐고, 문화부는 모니터링 결과 한 불상이 2004년 도난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조계종 문화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문화재전담팀,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와 합동으로 5월 29일 옥션 프리뷰 현장으로 출동해 장물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확인된 불상 1점과 불화 3점을 불교중앙박물관에 임시보관했다.

광역수사대는 그해 8월까지 조계종, 문화재청과 협력해 총 48점의 성보를 회수했고, 10월에는 그간의 수사 결과를 언론과 대중에 공개했다. 10월 22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문화재청장, 경찰청장 등 3개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고 조인한 '불교문화재 도난 및 회수를 위한 3개 기관 협약' 이 체결돼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시스템 구축이 이뤄졌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조계종과 피해사찰들은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조계종은 피해 사찰 19곳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회의를 통해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검찰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이 같은 대응 시스템은 이후 이어지는 불법 은닉 성보문화재 환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몰수 판결 선례 만든 2차 환수

2차 성보 환수는 2016년 4월 도난된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를 수사하며 시작됐다. 조계종은 서울지능범죄수사대 및 광진경찰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사립박물관장 A씨가 불법 은닉하고 있던 도난 성보문화재에 대한 환수를 본격화했다. 그해 9월 김룡사 사천왕도를 환수했으며, 10월 불상 6건을 임의제출 받아 불교중앙박물관에 임시 보관했다. 성보를 도난당한 피해사찰 주지스님들은 이번에도 '도난불교문화재 피해사찰 협의회' 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2018년 7월에는 법원이 A씨에 대해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은닉하고 있던 문화재에 대해 최초로 몰수를 선고했다. 이후 2020년 6월 대법원이 2심을 확정하며 도난 성보가 사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아직 진행 중인 성보 환수

사립박물관장 A씨와의 지난한 악연으로 대표되는 불법 은닉 성보 환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긍정적인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은닉 성보들에게는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과 문화재 몰수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난과 불법 은닉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된 만큼 이제 남은 숙제는 제도 개선이다. 이에 조계종은 민법상 선의취득 조항에서 불교문화재를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달거나, 거래 시 취득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문화재보호법 내 도난 관련 공소시효의 확대,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제도 폐지 등 조속한 환지본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 문화예술로 코로나 상처 보듬다

경기북부 · 양주사암聯, 6월 9일 양주 나리공원서 음악예술제 개최



지역불교계가 지역민을 위한 음악예술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불교계가 앞장서 위로와 치유를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북부사암연합회(회장 초격)와 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진)는 6월 9일 양주 나리공원 특설무대에서 '제18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 를 봉행했다.

이번 예술제에는 봉행위원장 초격 스님, 집행위원장 상진 스님, 집행부위원장 도일, 혜련 스님,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장 도심 스님을 비롯해 포천, 파주, 동두천 등 각 사암연합회 스님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법석인만큼, 식전 행사로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 위령재' 를 봉행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의미를 더했다.

위령제는 청련사 생전예수시왕생칠재 보존회를 어산단, 상진 스님을 법주로 봉행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쓰러져간 희생자 영가와 유주무주 고혼을 천도하는 동시에, 지역 내 드리운 우울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취지다. 일겸 스님의 홍고 시연을 시작으로 어산단의 민대령(영가 청함), 살풀이, 지단진언(보례삼보), 연꽃춤, 복청게 · 천수바라 · 도량게작법 등으로 진행된 위령제는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진 가운데 코로나19를 넘어 모두의 일상을 되찾고 미래의 희망을 일궈가기 위해 지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어 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과 백미 등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외이웃을 위해 기탁하기도 했다.

예술제는 1부 개회의식과 2부 공연무대로 이어졌다. 봉행위원장 초격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음악제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창작과 불교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과 화합의 축제' 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의 희망을 꽃피우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원장 상진 스님은 "오늘 문화축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뜻을 담고 있는 만큼, 모두가 음악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송지희 기자

"청와대 불상 보존, 불교 의견 경청 결정"

최응천 청장, 원행 스님 예방서 원행 스님 "전통문화 보존 노력"



최응천 신임 문화재청장이 최근 청와대 불상에 관련해 "불교계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청장은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총무부장 삼혜 스님은 "최근 청와대 개방 이후 청와대 미남불을 경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최 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최 청장은 "불상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청와대 불상 이전 문제는 불교계 의견이 중요하고, 불교계 여론을 수렴해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면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청와대 불상은 일제강점기에 현 위치로 이운됐는데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면서 "현 위치인 청와대에 이운된 역사성이 있기에 그 자리에 계속 계셨으면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와 인연이 깊은 분이 문화재청에 임명돼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면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최 청장은 지난 4월 26일 보물로 지정된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 보물지정서를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에게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JTBC 드라마 속 법당 도박 장면 불교 농락"

종평위, 6월 8일 성명서 발표 '인사이더' 속 스님 폄훼 비판 JTBC에 참회 · 영상 삭제 요구

6월 8일 첫 방송된 JTBC 수목 드라마 '인사이더' 에 불교를 노골적으로 폄훼하는 장면이 장시간 노출돼 논란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는 '불교농락' 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종평위는 6월 9일 'JTBC 드라마 인사이더의 불교농락 즉각 중단하라' 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JTBC에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개참회와 영상 삭제를 요구한 상태다.

문제가 된 장면은 사찰법당에서 불법 거액의 도박판을 벌이는 장면, 스님이 주도적으로 도박을 하고 판돈을 걸며 '관세음보살' '사바하' 를 외치는 장면, 도박장 단속 후 스님이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장면 등으로 드라마 도입부에 15분간 노출됐다.

종평위는 성명에서 "JTBC에서 악의적이고 노골적으로 스님을 폄훼하고 불교를 조롱하는 방송을 편성해 내보낸 것은 사찰에서 신행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수많은 불자들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하는 모든 스님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훼불행위"라며 "무엇보다 한국불교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불자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보고 있는 드라마에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오고 있는 불교를 그저 천박한 도박집단으로 한껏 조롱한 이번시태에 대해 전국의 불자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폄훼와 편향,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하는 사회의 악"이라고 강조했다.

JTBC의 공개 참회와 해당 영상 삭제 등을 요구한 종평위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JTBC 측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드라마는 에이스팩토리, JTBC스튜디오(SLL중앙 주식회사)가 제작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연홍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문만세 작가가 극본을 썼다. 임은호 기자



법랍 70년을 맞이하신 화산당 월인 대종사님께 조사전을 헌공합니다.

사)대한불교 승가종 화산당 월인 대종사 상좌, 손상좌 324명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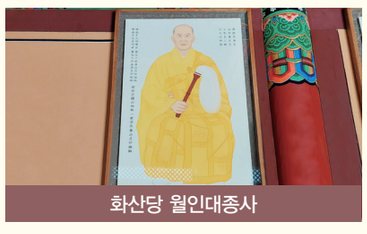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대로2520번길 251 승가사내 조사전 전경



진종당 용성조사님 보화당 석우대종사



대희당 봉암대종사 무진여당 종준대선사



화산당 월인대종사



주최 · 주관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